

미국편 2

공정과 진실이 결여된 보도로 패소한 사례

<사례 1>

1953년 1월 10일에 발행된 「The Cleveland Call & Post」 기사 중에는 Carroll E Williams 부부의 이혼소송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Williams 씨는 그의 반대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부인의 주장에 상반되는 고소를 했다. 그들이 결혼한 후에 그녀는 그에게 변태적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그를 성가시고 귀찮게 했으나 그는 항상 그녀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성도착」을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부인의 계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그녀와의 별거를 요구해야만 했다』 이 기사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성도착」이라는 용어의 사용이었다. Williams 씨는 이혼소송의 반대소장에서 「성도착」이라는 용어를 결코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그 대신 「변태적 방법의 성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Williams 부인은 그 신문사를 상대로 제소를 했고, 그녀는 오하이오 상소재판에서 명예훼손으로 25,000 달러를 배상받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법정은 「성도착」이란 용어는 「변태적 방법의 성관계」라는 용어보다 더 증오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사는 명예훼손에 저촉된다고 판결했다.

<사례 2>

「Uvadle (Texas) Leader - News」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했다.

『Uvadle 군의 부보안관인 Clarence Large 는 도난당한 1959년형 Cadillac 자동차가 10월 5일 (일요일)에 Sabinal 의 동북방 5마일에 있는 Jack Griffin 목장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고했다 Large 에 의하면 그 자동차는 Carpus Christi 에서 도난당한 것이라고 한다. 그 보안관과 Texas 경비대원인 Levi Dnncan 이 자동차를 발견했을 때는 그들이 그 지역을 순찰하고 있던 시간이었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그 자동차가 도난당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Uvadle 에 있는 본부에 무전을 타전했고 그 호출에 의해 Mondo 보안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그 결과 그 자동차는 도난당한 것이고 Car-pus Christ 의 C. H. Hunter 에게

절도죄와 관련된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Hunter 와 Al. Smith 가 그 자동차가 발견된 목장을 전에 임대한 적이 있었다. 부보안관인 Large 에 의하면 그 목장에 있는 집에는 방이 9 개가 있었으며 음식, 탄약, 라디오 그리고 텔레비전이 있었다.』 Hunter 는 장물구매와 은닉 그리고 강도죄로 기소중이긴 했으나 그에게 자동차절도와 관련된 영장이 발부된 사실은 없었다. 그래서 Hunter 는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소, 명예훼손에 관한 그의 소송사건은 Texas 의상고심에 의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결국 그는 법정 밖의 화해에서 3,000 달러를 배상받았다. 이 사건은 기사의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사례 3>

1957 년 12 월 20 일에 「Texas 의 Sunday Ex-press and News」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자매는 유전소송에서 승소했다. Inez Garcia Ruis 와 Aniceta Gar Barrera 인 자매는 그 땅이 Starr Country 에 거주하는 조카인 Beningo Barrera 와 Ennique G. Gonzalez 에 의해 부당하게 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그 자매는 Barrera 가 그 땅에 가축우리를 세우도록 허락하는 문서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땅에 관한 증서에 서명했다고 했다. 그 자매는 스페인어나 영어를 읽거나 쓸 수 없었다. 제 45 지방법원의 C. K. Quinn 재판관은 작년에 그 땅을 자매에게 돌려주었다. 상고 법원은 Barrera 와 Gonzalez 에게 패소를 선고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그 자매의 주소는 San Antonio 의 Guadalupe Street 2605 번지로 되어있었다. 』 이 기사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처음 Barrera 와 Gonzalez 가 피소중이었을 때 그 두 자매가 Gonzalez 에 대해서는 그들의 고소를 취하했었다는 사실이다. Gonzalez 는 명예훼손으로 Express 를 고소했다. Express 는 그의 변호에서 그 기사는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라고 주장했다. 비록 Gonzalez 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었다고 할지라도 Gonzalez 가 Barrera 의 상소규정에 서명함으로써 그 소송에 재결합했다고 Express 는 주장했다. 그러나 Texas 상고심은 Express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보도가 암시하고 있는 것은 Gonzalez 의 사기행위에 대한 고소가 지방재판소에 계류중인 것으로 보도하여 이미 소가 취하된 Gonzales 마저도 Barrera 와 함께 상고심에서 패소한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주었다. 』

Gonzalez 는 12,500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